

이데일리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기사입력 2020-01-07 10:53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발표**"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5년 임기 중 절반 동안 11.6% 올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값을 체감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가격 순서에서 중간 가격)역시 문 정권 초기 6억원대 초반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8억7272만원으로 폭등했다.

정부는 대출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및 종부세 강화와 공시가 현실화 등 십 여차례 넘는 대책 발표로 전방위적인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번번히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듭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 역시 올해 초 총선 출마를 접고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다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 한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올해 총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민심 이반을 불러오고 자칫 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 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정작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8년의 8·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세에 돌아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보고 투기 세력을 '적'으로 상정한 뒤 투기세력에게 패배를 안기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 보다는 서민 주거의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돈을 모아 보다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중산층들의 바람을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여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과 세정 당국을 동원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대출규제 등으로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는 12·16 대책이 나올 때 금융 및 세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550347>

